

한-영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 및 평론가 세미나

- 📖 일시 : 2013년 10월 1일(화) 15:00 ~ 17:00
- 📖 장소 : 문학의집 서울 증양홀
-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영국문화원
- 📖 주관 :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



한·영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 및 평론가 세미나

- 한국·영국 아동청소년 문학 출판·번역·수출 현황
및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 ◇ 일시 : 2013년 10월 1일(화) 15:00~ 17:00
- ◇ 장소 : 문학의집 서울 중앙홀
-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영국문화원,
- ◇ 주관 :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



세미나 개요

구 분	시 간	참 여 자	내 용
세션1	15:05~15:25(20분)	김경연	①영국 아동청소년 문학 출판 · 번역 · 수출 현황 ②향후 전망 및 발전 과제
	15:25~15:45(20분)	Tim Bowler, Julia Golding	영국 청소년 문학 작가 토크
세션2	15:45~16:05(20분)	김영욱	①한국 아동청소년 문학 출판 · 번역 · 수출 현황 ②향후 전망 및 발전 과제
	16:05~16:25(20분)	김혜진 이경혜	한국 청소년 문학 작가 토크
휴식	16:25~16:35(10분)		-
세션3	16:35~17:05(30분)	-	한-영 작가 대담 - Tim Bowler, Julia Golding, 김혜진, 이경혜

영국 아동청소년 문학 개요

- 영국 아동청소년 문학 출판·번역·수출 현황
- 향후 전망 및 발전 과제

김 경 연

(아동·청소년 문학평론가 및 번역가)

0. 들어가는 말

주어진 주제는 영국 아동청소년문학[이하 아동문학(Children's Literature)으로 총칭]의 출판과 번역·수출 현황 및 향후 전망과 발전 과제이지만, 영국 아동문학이 그동안 한국 아동문학 시장에서 차지해 온 위상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적인 수용상황을 일별해볼 필요가 있다.

1. 한국 아동문학과 번역 아동문학

한국 아동문학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20세기 초에 시작되었다고 받아들여진다. 당시, 즉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국은 외세(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의 각축장으로서 바야흐로 500년 왕조가 무너지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역이란 단순히 외국 문화를 소개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를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매우 의식적인 노력의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소(小)역사>(1896)와 같은 역사서, <비스마르크 Bismarck> (1906-1907), <이탈리아를 세운 세 영웅>(1907)과 같은 전기 또는 독일 작가 쉴러의 <빌헬름 텔(Wilhelm Tell)>을 토대로 쓴 <스위스의 건국>(1907) 같은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야기들이 소개된다. 물론 <아라비안 나이트(Arabian Nights)>(1895)라든가 John Bunyan의 <The Pilgrims Progress>(1895) Jules Verne의 <해저 이만리>(1907-08) <Zwei Jahre Ferien> (1912), Harriet B. Stowe의 <Uncle Toms Hütte> (1913) 같은 문학 작품들도 소개된다. 그러던 것이 1910년 일제의 강점 뒤에는 주로 문학 작품들이 소개되었는데, 일제의 검열과 탄압을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다.

아동문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아동문학은 주로 잡지를 통해 발표되었는데, 최초의 아동문학잡지(논란의 여지는 있다) 가운데 하나인 소년(1908-1914) 역시 외국 문학의 소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서 이솝 이야기(1908; 1909),(이솝 이야기는 1896년 교과서에 이미 소개) <걸리버 여행기 Gulliver> (1908), <로빈슨 크루소 Robinson>(1909)를 비롯해 Leo Tolstoi, Victor Hugo, Samuel F. Smith, James Montgomery, George Gordon Byron, Ebenezer Elliot, Alfred Tennyson, Samuel Smiles 등의 작품이 소개된다. 본격적인 아동문학 잡지로 꼽히는 <어린이>(1923-34)는 특히 Hans Christian Andersen, Brüder Grimm, Oscar Wild, Äsops Fabel 등의 동화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외국 동화를 접할 수 있게 한다. 이때는 외국 문물에 낯선 어린 독자들을 위해 번역이라기보다는 번안(adaptation)의 형태를 띤다. 1930년대 후반부터 더욱 강화된 일제의 문화탄압정책으로 잡지들은 점점 발간 자체가 어려워졌고, 1940년부터는 한국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므로 번역소개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없다.

1945년 해방 후, 글자 그대로 우후죽순처럼 출판사와 잡지들이 생겨난다. 두산 백과사전에 따르면 약 1000개의 출판사가 새로 설립되었고, 1948년 조선 연감에 따르면 잡지의 수는 124개에 이른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출판계는 다시 매우 어려움을 맞는다. 다시 출판이 꽃피기 시작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후이다. 50년대 말 계몽사는 50권의 세계 명작 전집을 출간한다. 전집은 한꺼번에 많이 팔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독자들은 여기서 Frances Hodgson Burnett의 <A Little Princess>, Lewis Carroll의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Astrid Lindgren의 <Nils Karlsson-Däumling> (aber nicht <Pippi>), Harriet Beecher Stowe의 <Uncle Tom's Cabin>, Mark Twain의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등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은 1959년 50권으로 출발해서 1993년까지 110권을 거듭하면서 1,960만권이나 팔렸다고 한다. 1992년 판으로 전 70권 세트가 보이는 것을 보면 30년 동안 20권이 추가된 셈이다. [참고: ppt]

전집의 단점은 부모들로 하여금 부모들은 “이렇게 많이 사줬으니! 난 좋은 부모야.” 뿌듯해하며 더 이상의 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목록이 특별한 보완 없이 수십 년 계속 되기에 이른다. 물론 날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문고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계몽사의 문고본이 그것인데, 목록을 보면 전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문고본은 세계 명작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 축약, 윤색) [참고: ppt]

* 영국 아동문학의 이른바 고전들은 80년 대 이전에 이미 많은 것이 소개된다.

* 1980년대에 이르면 현대 서구 아동문학에 관심을 둔 전집들이 나타난다(동서문화사 / 학원공사) [참고: ppt]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중반, 세계명작의 목록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형성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이데올로기 비판적인 시각에서 서구 식민주의, 제국주의 시대의 작품들을 읽힐 수 없다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형성된 데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당연히 관계가 있다.

이른바 386세대의 자녀 독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아동출판의 비약적인 성장을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새로운 작품들에 대한 수요는 1960년대 이후의 현대 외국 창작동화의 소개에 엄청난 기회를 열어준다.

2. 외국 아동문학 번역 출판에 대한 비판적 견해 들

1) “번역서가 너무 많다”

우리 출판 현황을 이야기할 때면 으레 지적되는 사항이 있다. 바로 번역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 한국출판문화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신간 발행종수의 30%가 번역서라고 한다.(대한출판문화협회의 통계자료는 납본된 자료를 근거로 집계된 통

계이므로 출판계 대표 통계로는 볼 수 없다는 전제가 따른다. 그렇기는 하지만 납본 비율이 대략 73%에 이른다고 하니, 대략적인 추이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될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청소년문학은 일반문학으로 집계된다는 점) 아동도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8.5%에 이른다.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2.5권 가운데 1권이 번역서인 셈이다. 하지만 1990년대만 해도 아동 분야의 번역서 비율은 평균치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급격히 편차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참고: ppt]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이 있다. 바로 아동출판의 성장 속도이다. 90년대 초반에 가히 폭발적이라 할 정도로 가파르게 차고 올라간 아동출판은 “1995년까지 연평균 45%씩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2002년 12월 26일자 한국일보) 2002년에는 문학과 교양 부문마저 크게 앞지르게 된다. 물론 1998년에 IMF의 여파로 일시적인 내림세를 경험하지만 이는 소폭에 그치고 1999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회복하는데, 이러한 상승세는 이후로도 계속되어 2005년에는 전체 시장규모 1위에 오르고, 2007년에는 급기야 전체 발행부수의 50.16%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2000년대의 번역률과 1990년대 번역률의 증가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자의 요구가 달랐기 때문이다. 1990년대 아동출판의 번역서에 대한 요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동시대 동화에 대한 요구. 1993년 7월호 <동화 읽는 어른>에서 이주영은 ‘16-19세기 동화보다 20세기 동화를 번역하자’는 어린이도서연구회 창립 취지를 재확인한다. 그러한 요청을 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16-19세기 동화들에 제국주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혐의를 두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은 아마도 <로빈슨 크루소>라든가 <세라 이야기(소공녀)>와 같은 작품에 해당될 터인데, 당시 유통되는 도서를 살펴보면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출범한 1980년대에 이미 비록 전집 형태이긴 하지만 메르헨 시리즈, 에이브 또는 에이스 시리즈 등의 목록에 중요한 20세기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둘째, 완역 고전에 대한 요구. 이는 전집에 대한 불신과도 맥을 같이 한다. 2000년에 한 칼럼에서 “명작이기 때문에 꼭 읽혀야 한다는 태도도 문제지만 19세기 제국시대의 소산이라는 이유로 싸잡아 명작을 거부하는 태도는 재점검 해 봐야 할 듯싶다. 그 사이에 짜깁기식 번역과 조잡한 편집에 대책 없이 맡겨진 어린이 고전의 출판 현실도 문제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2000년 6월 27일자 국민일보 <김경연의 어린이책방>).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 아동도서 시장을 활성화시킨 주역으로 간주되는, 지극한 교육열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386세대에 속한 많은 부모들의 요청이기도 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고전에 대해 향수를 갖고 있었고, 그때의 감동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 했다. (아동문학의 고전은 많은 경우 그렇게 성립한다.) 하지만 이제는 짜깁기식 번역, 그것도 일본어를 통한 중역이 아닌 완역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번역을 요구한다. 몇몇 대형 출판사들이 이 요구에 동참하고,

나아가 현상적으로는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전의 전집과는 다른, 독자적인 작품 목록을 채워나가기 시작한다.[번역 인프라]

동시대 동화와 고전의 새로운 믿을만한 번역에 대한 요구의 결과, 특기할 만한 현상이 나타난다. 1920년대 전후는 물론 1970년대, 1980년대, 그리고 당해년의 작품이 뒤섞인 채 한꺼번에 소개되는 것이다. 작품이 후대에 재발견 되는 경우는 문학사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지는 않지만, 짧은 시기에 거의 모든 시기의 작품이 '몰(沒)'역사적으로 쏟아질 때 독자로서는 갈피를 잡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만약 서지사항이 잘못되거나 불분명하다면 더욱 그렇다.[문학상 작품들에 대한 특별한 선호]

문제는 그 이후다. 이른바 검증 받은 작품들이 속속 소개되는 시기가 끝나고 '더 찾을' 타이틀이 없다는 판단에 도달하자 출판사들은 신간 잡기에 안간힘을 쓰게 된다. 따라서 2000년대의 번역서 비율은 이 점에서 1990년대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바로 종수 채우기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 양에 급급하다보면 질에 소홀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법이다. 이와 관련해서 번역서가 일정 정도 문학성이나 상품성이 검증되었다는 생각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는 1996년에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한다. 저작권의 강화로 이를 중개하는 에이전트들의 입지가 커지게 되는데, 번역출판이 필요이상으로 과열된 데는 이렇듯 출판사들의 신간에 대한 요구와 에이전트들의 발 빠른 대응이 맞물린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해외 저작권료가 가장 비싼 나라로 인식된 데도 에이전트의 책임이 없지 않다. 저작권 구매자로부터 얼마나 높은 로열티를 확보하고 얼마나 많은 선인세를 받아내는가가 저작권 판매자에게 에이전트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진다는 한 에이전트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물론 그런 과도한 경쟁과 출혈을 무릅쓰면서까지 '시장성'을 이유로 저작권을 사들이는 출판계의 책임이 가장 크다.) 때로는 원산국에서 검증될 겨를이 없이 '더미'[가제본?] 또는 PDF 상태에서 저작권이 거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차떼기가 아니라 서가 떼기로 저작권을 구매하는 행태도 나타난다. 그렇게 충당된 작품들로 만들어진 일부 전집이 버젓이 세계의 명작 동화라는 수식어를 달고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외국동화의 활발한 소개를 넘어 '포화' 상태에 이른 느낌.

2) 특정 언어권에 편중되어 있다

번역 출판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하나의 레퍼토리는 특정 언어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참고: ppt]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1998년 번역된 문학작품의 원산국 분포도는 영어권이 44.9%, 일본이 15.5%, 중국이 10%, 프랑스가 9.8%, 독일어권이 7.4%로 나타난다. 만약 일본어가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는 만화까지 포함된 전체 도서를 대상으로 한 통계였다면 분포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2007년은 어떤가. 다시 한번 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백원근의 자료에 의존해보면, 일본(37%)과 미국(31%)이 변

함없이 번역서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비율 순으로 나열해보면 그 다음 영국이 7.9%, 프랑스가 6.3%, 독일 5.5%(이것이 독일이라는 국가를 뜻하는지, 독일어권을 뜻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만약 전자라면 독일어권에 속하는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도서가 배제된 셈인데, 그렇다면 독일어권 번역도서의 수치는 조금 상회할 수 있다.), 중국 2.8%, 이탈리아 1.4%, 체코 1% 순으로 나타난다. 역시 영미권이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는 것이다. 일본의 비중이 높은 것은 만화 부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간의 일본소설의 활발한 소개도 일정한 몫을 했으리라 여겨진다.

이상의 통계에 따르면 영미권이 48.9%으로 전체도서의 38.9%보다 훨씬 웃도는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서구 편향이 더욱 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책임을 곧바로 출판계에 묻는 것은 적어도 아동도서 부문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본격적인 세계 아동문학의 역사는 이제 겨우 약 150년을 헤아리고 있고, 여기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영미권을 비롯한 서구 아동문학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문학(Young Adult Literature) 역시 영미권이 먼저 행보를 내딛었다. 따라서 대략 제2차 세계대전 전 시기까지의 아동문학 고전이나 청소년문학에 눈을 돌린다면 서구편향, 특히 영미권 편향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기조차 한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고유의 아동문학 역사를 축적한 지금에는, 언어적 접근성이든 시장성이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균형 잡힌 소개를 위해 노력을 하느냐고 물을 수 있고 또 물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변화의 조짐은 있다. 일본서에 대한 관심은 수치에서도 보이듯 일찌감치 약진을 보이고 있고, 창작 동화에 국한해 보아도 중국과 대만은 물론 터키, 인도, 스페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등 비록 종수는 적지만 다양한 국가의 당대 아동문학이 선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3. 나가는 말

* 우리나라 독자에게 영미권(나아가 서구 아동문학)의 국가구분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듯하다.

* 2000년대 중반 사회적 변화[실용주의, 영어 중시, 386세대 학부모의 퇴장 등]로 아동출판 시장은 급격히 냉각된다. 문학상[안데르센상/ 라가치 상 포함]의 매력도 급감 [뉴베리, 칼데콧이 유명. 상대적으로 카네기 상, 휘트브레드 상은 인지도가 낮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아동문학은 여전히 한국 독자들에게 어필(판타지: 해리포터/ 팀 보올러의 리버보이/ 앤 파인 (Anne Fine)/ 데이빗 아먼드(David Almond)/ 필립 풀먼/ 그림책: 버닝햄/ 로렌 차일드 등등)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 개요

-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 출판·번역·수출 현황
- 향후 전망 및 발전 과제

김 영 옥

(그림책 연구자·동화작가·번역가)

1. 2013년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의 지형도

문학이 위기라고 한다. 실제 아동문학의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더라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아동출판의 판도가 지난 두 해 동안은 급격한 출간도서 수의 감소를 보이며 뒤집어졌다. 모바일 폰으로도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누린다고 책을 기피하는 현상은 지하철에서조차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2013년 대한민국 서울의 문화 풍속도는 책 없이도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마냥 즐거울 수 있는 '얼웨이즈온(always on)' 형태의 후기 정보화 사회의 단면을 잘 드러내준다. 성인들 문화 판이 이와 같은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데에도 그 한계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이다. 불과 몇 해 전까지도 아동청소년 출판은 출판계의 블루칩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아동청소년 도서 출판사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났고, 아동청소년 도서는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성장도 이뤄낼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을 읽는 성인 동화 읽기 모임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지역 도서관 등에서도 작가를 초대하여 동화에 대한 이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했다.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의 숫자도 괄목할 만큼 늘어났고, 아동청소년문학 연구도 이에 탄력을 받아 발전해 왔다.

그런데 두 어 해 전부터 위기의식을 느끼는 작가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이들이 토로하는 불안의 이유들을 가만 듣고 있자면, 전혀 근거 없는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독서인구의 감소가 다른 매체의 등장 때문이라면, 책 읽는 문화 활성화를 꾀할 방도를 마련하여 극복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인구 감소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이 제공하는 인구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남한의 추계인구는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 문제는 이 인구의 신생아 출산률의 해마다 떨어져, 2012년 기준치로 볼 때, 전년 대비 0.4% 성장에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6백 7십 8만 8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장래 인구 추계 - 전국 (Kosis)>

	2010	2012	2013	2015	2017	2019	2020
인구성장률 (%)	0.5	0.5	0.4	0.4	0.3	0.3	0.3
인구(명): 0-14세	7,975,374	7,559,063	7,370,118	7,039,594	6,840,263	6,784,902	6,788,432

아동문학 활황기의 막바지였던 2010년에 비교하자면, 10년 사이에 거의 1백 2십 만 명(2010년 대비 약 15% 감소)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한 국가의 인구가 1억이 되어야 내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경제 가설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감지된 아동청소년 출판물의 공급은 (잠재적 아동청소년 독자 인구 대비) 내수를 초월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레 진단하게 된다.

물론 이는 지극히 경제적 논리에서, 더군다나 인구-계량적 토대에 한정하여 살펴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작금의 국내 시장 아동청소년 출판물 과포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정된 국내 독자 인구수를 인정하고 해외 독자를 찾아 나서는 데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출판 관련자들을 자극하는 촉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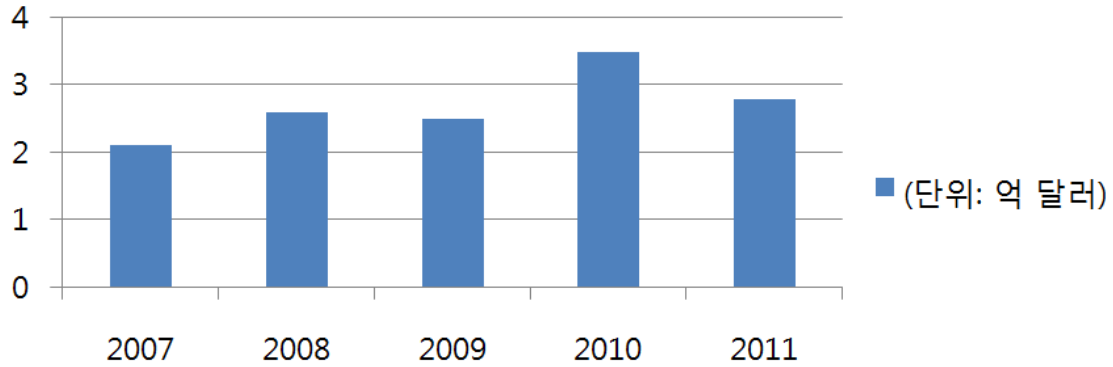
2.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의 해외 저작권 수출 실태

그런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도서 중 순수문학작품만을 놓고 볼 때, 해외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30%(2008년 약 40%) 이상을 웃도는 현상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내 작가가 팔목할 만큼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해외 번역 작품이 전체 아동청소년 문학 신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한, 국내 작가의 분투는 한결 과열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제공한 '2012년 출판 통계'에 따르면, 당해 국내 아동도서 신간 발행은 전년 대비 학습참고서류 (-36.1%) 와 아동서(-21.5%) 감소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출판 시장이 당면한 어려움을 반영한 지표로서, 저작권 수출 육성이야말로 풀죽은 작가들의 사기를 재충전시킬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저작권 수출 문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 문학이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며, 특히 1990년대에는 번역지원 작업이 시행되었다. 한데 정작 한국 문학의 해외 소개는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저조했다. 반면, 후발주자로 뛰어난 아동서 저작권 수출 분야는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다. 그림책을 선두로 아동서 저작권 수출이 전체 국내 도서의 해외 수출 비율 중 60%(아동서 51%, 만화 16% - 2011년 기준) 이상을 웃돈 통계치가 이를 입증해준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 한국 아동도서 수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나 청소년 보다는 아동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그림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내용별로는 픽션이 논픽션보다 월등히 많고, 그 중에서도 판타지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반면 생활동화와 정보서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물론 학습 도서가 몇몇 발 빠른 출판사에 의해 중국과 대만 등지에 수출되었지만 이들의 수출 종수와 판매 부수 등에 대한 데이터 확보는 되어 있지 않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구소,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콘텐츠진흥원, KBBY 등의 기관에서 수출 도서에 대한 통계 자료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저작권 수출이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의 자료를 제대로 확보해 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이를테면 남미와 아프리카에 수출을 활발히 해왔던 '여원 미디어' 등의 출판사 계약 실적 등은 아예 누락되고 말았다. 결국 이 단체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지난 9월 28일,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아동서 수출 현황 분석과 관련된 발제를 맡은 한북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김민화 교수의 자료에 의하면, 관 주도의 수출도서현황분석이 아동청소년문학 분야의 다양한 세부장르 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단순히 아동도서, 일반도서, 만화 정도로 구분)

출판산업수출액 (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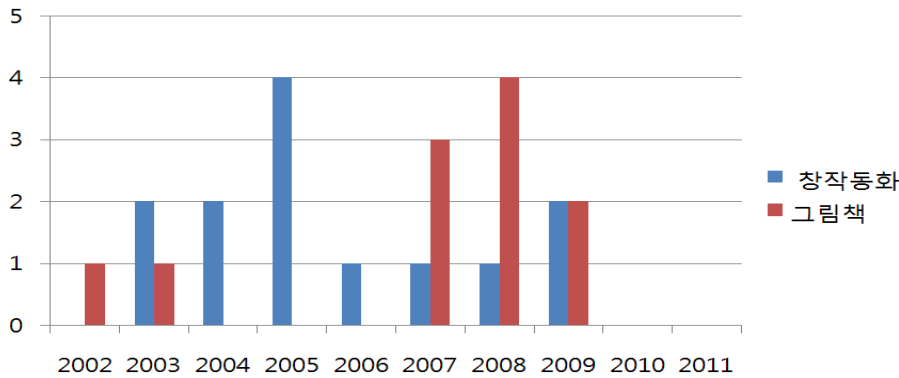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아동수출도서의 주된 수출국가는 중국(28.6%), 프랑스(18.4%), 일본(16.5%), 대만(11%)의 순이었다. 영국이나 미국은 미미한 정도에 그쳤는데, 이 통계에서 누락된 중소 출판사의 해외 저작권 수출 동향을 감안하게 되면, 다소간의 조정이 필요하단 점도 염두에 뒤야 한다.

년도	종수	수출국가	총 선인세(US달러)
2005	1	중국	없음
2008	29	중국, 태국, 대만, 프랑스, 브라질	19만 3000
2009	48	중국, 일본, 태국, 대만, 프랑스, 폴란드, 멕시코, 브라질	30만 4000
2010	29	중국, 대만, 일본,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12만 8000
2011	47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이란,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1만 7000
2012	45	중국, 대만, 일본, 몽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프랑스, 폴란드, 브라질	13만 9000

한편 한국문화번역원(2012년 9월 10일 자 기준)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영어권 번역 현황과 경향을 살펴보면 영미권에서는 창작 동화보다 그림책 저작권 수출이 훨씬 더 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목록표와 다음 페이지 그래프 참조)

연도	작품명	저자	출판사	번역명	장르
2002	노란우산	류재수	보림	Yellow Umbrella	그림책
2003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보석	재미마루	While We Were Out	그림책
2004	한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김소문		Korean Children's Favorite Stories	
	청개구리 이야기	허유미		The Green Frog: A Korean Folktale	
2005	옛날 옛적에	김민구		Once upon a Time in Korea	
	수밀이와 수밀이	김우경	우리교육	Sull vs. Sull	잡작동화
	나쁜 어린이표	황선미	동진어린이	The Bad Kid Stickers	잡작동화
	64의 비밀	박용기	바람의 아이들	The Secrets Behind the Number	잡작동화
2006	금강산 포항이	김소문		The Tiger softened the Kungang Mts.	
2007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	이성실 외	다섯수레	Look! A Frog Has Laid Its Eggs	그림책
	새벽	배인주	사계절	New Clothes for New Year's Day	그림책
	동물원	이수지	비룡소	The Zoo	그림책
	엄마 마음	이태준, 김홍섭	소년한글	Waiting for Mama	그림동화
2008	심심해서 그랬어	윤영규, 이태수	보리	Because I was bored	그림책
	영웅이 사라졌다	홍지희	비룡소	Season in another World	잡작동화
	포항이 금강	위기철, 김광영	국민서관	The Tiger and the Persimmon	그림책
	뚜꺼비 신랑	서정호	보리	The Toad bridegroom	그림책
	내 표종 1호 티노	김영수	비룡소	Tino: My number one Dinosaur	그림책
2009	청개구리의 눈물	황혜숙		Frog's tears and Other Stories	
	9박 10일	허유미		Ten Day and Nine Nights	

한국문학번역원 측에서 작품의 인덱스 작업을 꼼꼼하게 해주지 않은 편이기에, 일일이 상세 검색을 다른 사이트를 통해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게다가 본 발표자의 게으름 탓에 2011년과 2012년 저작권 수출을 맺고 번역 출간된 아동청소년 도서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양해 바란다. 다만 통계 자료를 검토하며 아쉬웠던 점을 지적하다면, 첫째, 영어권이라도 저작권이 수출된 해당 국가가 영국인지 미국인지 호주인지, 혹은 인도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제3국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나 『청개구리의 눈물』과 같은 작품을 어느 하위 장르에 분류해야 할지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 동화와 그림책으로 간편 분류되어 있는 한계를 감안하면서 데이터를 검토해 보면, 2002년 미국에서 『Yellow Umbrella』란 책제로 출간된 류재수의 『노란우산』 이래 매해 근근이 몇 권씩은 영미권에서 번역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저작권 수출 도서도 많이 있으리라 짐작하되, 아무쪼록 2007년 이전까지는 창작동화가 그림책 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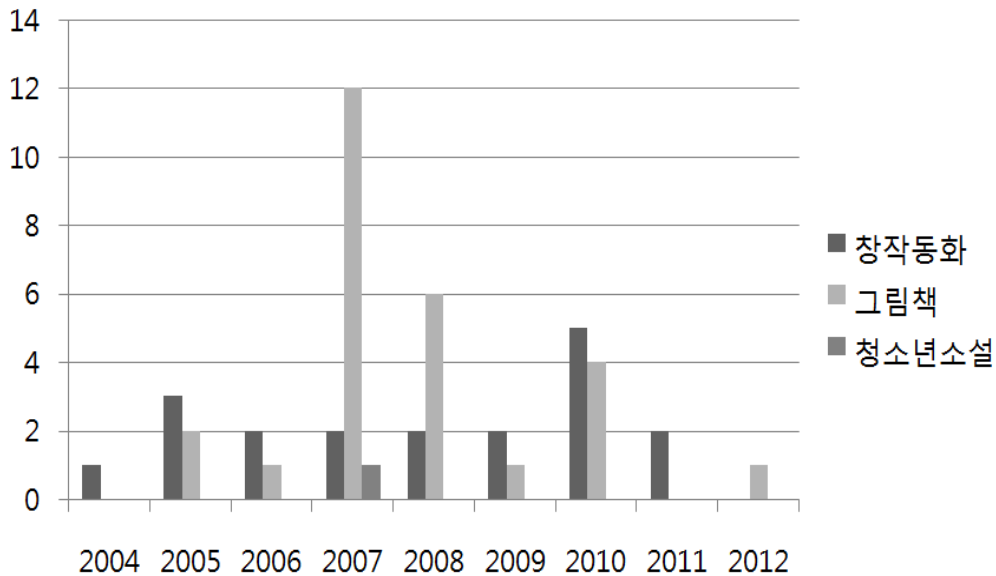


< 연도별 영어권 아동청소년문학 번역 작품 수 (권)>

전 페이지의 첨부 목록표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영미권에 저작권이 수출된 아동 도서의 목록이다. 면면을 살펴보자면, 『수일리와 수일리』, 『영모가 사라졌다』는 판타지, 『64의 비밀』은 과학소설, 『나쁜 어린이 표』는 생활동화이다. 몇 편 안되는 자료를 놓고서 전반적인 호감도를 보인 하부 장르를 가늠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사실 주의에 의거한 생활동화류 보다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2차 세계 혹은 과학적 상상력이 가미된 판타지 등에 다소나마 호감을 더 보이는 쪽이 영미권이라 하겠다.

상대적으로 수출 실적이 부진한 영미권에 비하자면, 프랑스 쪽은 양호한 편이다. 국제 도서전에 참가했다가 에이전시에 의해 발탁되어 프랑스 현지에서 번역출간되고 이후 프랑스 현지 어린이들이 선정한 ‘앵콜뤼티블’ 상까지 수상한 김진경의 『고양이학교』(2004년 현지 출간)가 저작권 수출의 시발점이다. 『고양이학교』의 견인차 역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지난 10년간 프랑스 쪽 수출 실적은 창작동화와 그림책 양 쪽 모두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다음 페이지의 그래프는 프랑스에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번역·출간된 한국 아동 청소년 문학 작품의 수를 보여준다. 창작동화가 꾸준히 소개된 것처럼 그래프 막대는 보여주고 있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고양이학교』가 1권부터 3권까지, 각각 1, 2부로 나눠 출간되었던 점을 참작해야만 한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2007년도에는 그림책이 무려 12권이나 출간되었는데 면면을 살펴보면 프랑스 권역에서는 한국 그림책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렵짐작이 가능해진다. 우선 대개가 한국의 민담을 다루거나 토속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데, 그 경우로 『열두 띠 이야기』, 『까치와 호랑이와 토끼』, 『오늘이』, 『바리공주』를 들 수 있다. 한편 이수지의 『검은새』와 이현경의 『하은이와 비토리아』처럼 현대 미술의 한 갈래인 포스트모던 ‘추상’ 경향을 띠고 있는 그림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에도 이수지의 『동물원』(2008)과 『우리는 별거숭이 화가』(2008), 이혜리의 『우리집엔 괴물이 우글우글』(2008), 이호백의 『나의 아틀리에』(2009), 이현주의 『그림의 하얀 캔버스』(2012) 등이 소개되었는데, 예술 교육을 중시하는 프랑스 조기 교육의 한 특징 혹은 문화전통을 사랑하는 그네들의 정서가 반영된 선택이라 간주해도 무방할 것 같다.



또 다른 특이 사항으로는 이청준의 청소년 소설 『선생님의 밥그릇』(2007)과 김향금의 역사동화 『고구려를 세운 영웅 주몽』(2011)도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이미 영어권, 불어권, 일어권을 포함한 모든 주요 언어권에서 문학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저작권 수출을 이룬 이청준이란 작가의 인지도가 있다. 작고한 이청준은 한국 토속적 정서와 신화를 버무린 작품에 천착해 왔는데, 그의 작품 중에서 『이어도』(1990)를 필두로, 『예언자』(1991), 『당신들의 천국』(1993), 그리고 『그 노래 다시 부르지 못하리』(1999)가 이미 최윤과 파트릭 모리스 콤비 번역자에 의해 불어로 번역된 사정이 있었다. 이로서 우리는 문학적성을 인정받은 작가의 경우라면, 그가 주로 성인 본격 문학관에서 활동을 했더라도,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이 있다면 현지 출판사들에게 소구력 있는 작가일 수 있음을 시사 받게 된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건국 신화를 다룬 김향금의 역사 동화는 어떤 배경으로 저작권 수출이 성사되었을까? 주지하다시피 김진경은 『고양이학교』를 창작하기 이전에 동북아 신화와 전설을 공부하고, 우리 신화와 비교 연구를 한 바 있다. 『고양이학교』에서도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신화 시절의 만주 공간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그 시절 건국 신화인 ‘주몽 이야기’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은 『고양이학교』란 판타지를 통해 이미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 실태와 작가들의 현주소

젊은 작가들일수록 문학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더 느낀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아동문학 국내 출판 분야에서 ‘파이 나누기’ 식으로는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 이들의 허심탄회한 속내이다. 일부는 해외 출판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기 원하지만, 국가별, 장르별, 구체적 자료는 고사하고 해외 출판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조차 아직까지 요원한 감이 없잖아 있다. 그림책 작가의 경우 볼로나 북페어 등을 통해 개인 창작물의

포트폴리오를 들고서 에이전시와 접촉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지만, 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글작가의 경우 한글로 창작한 원문을 관심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엄감생심', 자신의 작품의 줄거리마저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해마다 대산문화재단과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해외 출판을 독려하기 위해 번역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작가는 극소수에 그친다. 또한 몇몇 유관 단체에서 몇 해 전부터 해외 출판 아동문학작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작권 수출에 관심이 있는 작가나 출판사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현실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가령 한국번역문화원 홈페이지(http://www.klti.or.kr/ku_01_01_011.do)의 번역출간도서 상위 카테고리는 연도별, 언어권별, 장르별, 출판사별로 분류되어 있고, 언어의 하위분류 코드로는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중어, 일어, 러시아어, 기타어로, 장르의 하위분류 코드로는 현대소설, 현대시, 현대기타, 아동, 인문·사회,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섬세한 검색 틀이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참고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No	번역서	원서	장르	출판사	번역가	문인	원문생플
854	رحلة إلى سيول	상행	현대/시	Kalema	조희선, 마호무드, 아흐마드 알둘 가파르	김광규	없음
853	100 Love Poems from Old Korea	사랑의 시	현대/시	Global Oriental	케빈 오록	작자미상	없음
852	100 chuyện ngày xưa đã c sắc Hàn Quốc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1	고전	NHÀ XUẤT BẢN HỒ CHÍ MINH	도 옥 루이엔	서정호	없음
851	A Chain of Dark Tales	검은 이야기 사슬	현대/소설	Stallion Press	유인래, 루이스 빈치게라	정영문	없음
850	A Distant and Beautiful Place	원미동 사람들	현대/소설	University of Hawaii Press	김소영, 줄리 피커링	알귀자	없음
849	A Divided Time	분단기	현대/소설	Dong-Suh Munaksae	설순봉	정윤병	없음
848	A Floating City on the Water	물 위에 떠있는 도시	현대/소설	Home & Sekey	최진영	손장순	없음
847	A Grey Man	회색인	현대/소설	Si-sa-yong-o-sa, Inc	전경자	최인훈	없음
846	A House on the Road	길 위의 집	현대/소설	Stallion Press	이수분	이혜경	없음
845	A Korean Century-River and Fields	강과 밭	현대/시	Forest Books	안선재	구상	없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구소,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콘텐츠진흥원, KBBY 등등, 유관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아동청소년 도서의 저작권 계약 및 번역출간데이터는 표준화된 인덱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수출 데이터를 아우르고 있지도 않다. 앞서의 한국문학번역원 제공 데이터를 예로 들면, 영미권으로 뭉뚱그려진 언어범주로는 실제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선호하는 장르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창작동화의 범주로 분류된 작품의 하위분류 코드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색자는 일일이 별도의 문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림책도 마찬가지로 좀 더 구체적인 코드 체계 마련이 시

급하다 하겠다. 그래야 해외 진출 의사가 있는 창작자들 입장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작품 창작과 현지 관련 작품을 비교 검토하고, 번역 및 에이전시 접촉 등을 설계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대형출판사라 할지라도 해외 현지 법인 사무소(출판사무소)가 많지 않고, 파트너십을 맺은 외국계 현지 출판사를 두고 있는 경우도 드물다. 출판사 입장에서도 해외 마케팅 개척이나 R&D 부분에 소극적으로 임하는데, 이런 태도 또한 국내 아동청소년 작품의 저작 수출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출판대행 에이전시들의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우선시 되므로, 국내 출판물의 해외 수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오히려 에이전시 설립 목적에 맞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이미 인지도 있는 해외 작가의 창작물을 국내에 소개하고 엄청난 단위의 수수료를 수수하는 편이 합목적적이고 절차도 편리하다는 입장을 보편적으로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류의 수출입 시 에이전시는 최초계약금의 10% 내외를 수수료로 책정한다. 물론 해외 시장을 위탁 개척해준 대가로 적절한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이는 작가 입장에서 결코 작지 않은 몫이다. 게다가 에이전시 입장에서 국내 작가의 출판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작품소개와 샘플 번역을 해두고, 해외 출판사 섭외를 하는 과정이란 번거롭고 귀찮고, 투자 대비 결과가 미미하기에 매력적인 비즈니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노골적으로 말해 에이전시는 이제껏 수출보다는 수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영문과 중문으로 동시 발행되는 계간지 <List>를 발행하여 다양한 층위의 한국 문학과 작품들을 해외에 소개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와 별도로 한국 도서의 해외 저작권 수출과 문화 교류를 장기적 목적으로 두고, 다양한 행사도 주최해왔다. 또한 해외 거주 원어민 번역가 및 번역 관련 전문가들에게 국내 레지던스 체류지원을 통한 다양한 번역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7년째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학 번역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 번역가 커뮤니티'와 미주 지역의 한국문학 진출 강화와 확장을 위해 '북미한국문학원크럽' 역시 개최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관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어권의 역사, 문화,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우리글과 문화에도 정통한 번역자를 확보해 두었는가, 즉 인력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역으로, 외국문학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번역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양적 팽창만이 아니라, 질적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해외 각국에 거주하는 교포, 특히 문학전공자를 중심으로 한국문학 번역 인력풀을 만들어두는 것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또한 해외 아동청소년 저작권 계약 실태 파악 데이터를 만드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수출 도서를 입수하여 한글 원문과 대조하여 번역상의 문제점이나 문화번역 상이 오류 등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지를 논하는 정례적인 토론회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향후 전망과 발전 과제

서구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던 어린이청소년 수입 도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한동안 출판계에서 있었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번역·출판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된 지도 여러 해가 되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학을 통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출판계가 노력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또한 우리 창작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작가 발굴과 육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 역시 꽤 고무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직도 출판사 마케팅이 국내로 한정되고, 해외 마케팅의 노하우가 없다는 점은 출판 내수력의 한계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방치해둔 안일한 태도로 비춰 아쉽다. 물론 규모가 작은 출판사에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자체 기획팀을 파견할 여건도 못 될 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성상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출판사가 유관 기관에 국가별 출판 현황과 문화/언어권 별로 선호되는 장르와 내용, 모티프, 형식 등에 대한 정기적 논의를 요구한다면, 공조 차원에서 뭔가 구체적인 방안들이 도출될 가능성이 한결 높아질 것이다. 이를 토대로 창작하는 작가에게도 피드백을 준다면, 작가들도 소재와 형식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하며 국제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문은 특정 소수 작가들만을 위한 좁은 문처럼 느껴진다. 해외로 열린 채널이 출판사의 강력 추천이나 유관 기관의 공모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스타가 된 작가는 그 대중적 인지도에 따라 후속 작품까지 후광 효과를 입고 평탄대로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과연 그런 작가의 모든 작품이 다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어야 하고, 국내 스타 작가의 문학성이 과연 해외 평단과 독자들에게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이 고민과 병행 혹은 선취되어야 할 것으로는 다양한 선호를 보이는 주요 수입국의 출판시장 구조와 출판 관행 및 아동청소년문학의 망탈리테를 분석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지만 수출 기획 단계에서부터 추천하고 장려할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는 데 참고될 기준도 마련되고, 국내 아동출판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인기를 몰고 올 잠재력 있는 작가발굴도 가능해 질 것이다.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와 비평 활동도 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정지한 분석과 유의미한 전망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창작 아동청소년도서에 집중되고, 해외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과의 비교문학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또한 해외에 아동청소년 도서를 소개를 목적으로 연구방법론도 부재해 왔는데, 이제라도 학계와 출판계 그리고 유관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가장 먼저 지금까지 수출된 아동청소년문학 작품들의 통계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공통 인덱스와 코드 마련을 위한 공조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지속적 작업과 더불어 데이터베이스 통계분석을 어떻게 하면 비평적 분석의 밑바탕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합동연구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세계

- 이경혜 작가
- 김혜진 작가

작품집을 중심으로 _ 이경혜

『행복한 학교』



『마지막 박쥐 공주 미가야』



『그 녀석 덕분에』



『쥐 둔갑 설화』



『어느날 내가 죽었습니다』



불완전함의 가능성과 아름다움 _ 김혜진

제 작업은 크게 두 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세계의 이야기'라는 판타지 동화 시리즈입니다. 지금까지 <아로와 완전한 세계>, <지팡이 경주>, <아무도 모르는 색깔>, <열두째 나라> 네 권이 출판되었고 다섯 권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완전한 세계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불완전한 세계'라 부르는, 저쪽 어딘가의 '완전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한 세계의 아이들이 완전한 세계에 가서 겪는 모험 이야기이지요.

완전한 세계에는 열두 나라가 있는데, 별꽃나라, 섬나라, 산나라, 초원나라, 색채나라, 노래나라, 호수섬, 공중도시, 건축도시, 유리성, 불의 나라, 꿈의 사막입니다(나라들의 이름을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의 조합으로 만든 것은, 이 세계가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보이길 원해서였습니다). 이 완전한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불완전한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완전한 세계는 완전하기 때문에 끝이 정해진 책처럼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불완전하다는 것은 곧 열려 있다는 것,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아로, 아현, 아진 삼남매는 각각 이 세계에 가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내지만 그것은 이 아이들이 뛰어나거나 남달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도 많고, 할 수 없는 일이 많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그만큼 타인을 돕고, 자기가 할 수 있는만큼을 성실히 해냈기 때문일 겁니다.

제 작품세계에 있어 또 하나의 갈래는 청소년 소설인 <프루스트 클럽>, <오늘의 할 일 작업실>, <깨지기 쉬운 깨지지 않을> 등입니다. 많은 청소년 소설들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을 다루는 것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없는 평범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듯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에게도 온 인생을 흔들만한 고민과 갈등이 있으니까요.

대표작 <프루스트 클럽>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기 위해 모인 세 명의 열일곱 살 여자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읽기 힘든 어려운 책을 함께 읽으며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낸 아이들은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쓰고 싶었던 것은, 상처를 입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상처 없는 말끔함보다 흉터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상처를 어떤 흉터로 만들어 갈 것인가로 시선을 돌린다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상 동화와 현실에 바탕을 둔 청소년 소설, 색깔도 느낌도 전혀 다른 두 갈래의 작품을 쓰고 있지만, 제 책들의 바탕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불완전함의 가능성과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완전함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그대로, 모자란 그대로의 아름다움이며 완전함에는 없는 가능성입니다.

참여작가 소개

팀 보울러 (Tim Bowler)



- 첫 작품인 『꼬마 난장이 미짓』으로 Belgian Boekenwelp Award와 뉴욕도서관 청소년문학상 수상
- 1997년 『리버보이』가 영국 카네기 메달상 후보에 선정되어 경쟁작 『해리포터』를 제치고 만장일치로 수상작으로 선정
- 그 밖의 주요 작품으로는 『스퀴시』(랭커셔도서관 청소년문학상 수상) 『스타시커』(앵거스 도서상, 뉴욕도서관 청소년문학상 수상) 『스툼 캐처』(랭커셔도서상 수상) 『프로즌 파이어』 등
- <http://www.timbowler.co.uk/>

줄리아 골딩 (Julia Golding)



- 『코니 라이온하트』 시리즈를 시작으로 『드래곤플라이』, 『캣 로열』 시리즈 등 집필
- 네슬레아동문학상, 오타카아동문학상 수상
- 2007년 Waterstones 가 뽑은 미래의 작가 25에 선정
- <http://www.juliagolding.co.uk/>

김 경 연



- 아동·청소년 문학 평론가 및 번역가
- IBBY 한국지부(KBBY)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 실행위원회 위원장
- 『그림 형제 민담집』, 『왕도둑 호첸플로츠』, 『행복한 청소부』, 『책 먹는 여우』, 『미학이론과 문예학 방법론』, 『옛날옛적에』 등 다수 번역
- 평론집 『우리들의 타화상』 등 발간

김 영 옥



- 월간 『작가들』 편집위원, 월간 『어린이와 문학』 편집위원
 - 『그림책 음악을 만나다』, 『그림책 영화를 만나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 도서 선정
 - 동화 『신기한 베개』, 『내 꿈이 제일 좋아』, 『책벌레 대소동』 발간
 - 청소년 소설 『알카포네의 수상한 빨래방』 외, 그림책 『비밀의 강』 등 번역
-

이 경 혜



-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부문 당선으로 등단(작품명: 과거순례)
- 2001년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아동문학 단행본 부문 수상(마지막 박쥐 공주 미가야)
-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그 녀석 덕분에』, 『유명이와 무명이』, 『행복한 학교』 등 발간

김 혜 진



- 판타지 동화 시리즈 『아로와 완전한 세계』, 『지팡이 경주』, 『아무도 모르는 색깔』, 『열두째 나라』 발간
- 청소년 소설 『프루스트 클럽』, 『오늘의 할 일 작업실』 등 출간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지붕 위에서』 등 번역
- 대산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